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하늘 지붕의 기둥’

소나무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가 또 있을까. 예부터 지조와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 소나무는 선비들이 대나무, 매화와 함께 ‘추운 겨울의 세 벗’(歲寒三友)이라 부르며 즐겨 그렸다. 아기가 태어나면 생술가지를 끼워 금줄을 쳤고, 술가지와 술잎을 태워 밭을 지었다. 소나무 속껍질(송기)은 가난한 이들이 귀중한 시절을 견디게 해줬으며, 가을에 나는 향긋한 송이는 최고의 미식을 선사한다. 애국가는 물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에도 소나무는 빠지지 않는다. 한 시인이 ‘소나무의 정부’ ‘소나무의 궁궐’이라고 노래한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숲에 가면 소나무의 그 오랜 위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아래로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봉화와 울진 일대에서 자라는 금강소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는 곧고 단단해 공결과 사철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한 버팀목이었다. 임금의 관을 만들 때는 금강소나무의 안쪽, 색이 짙은 심재만을 사용해 '황장목'(黃腸木)이라고도 불렀다. 오지에서 별채된 금강소나무는 기차가 닿는 경북 봉화 춘양역으로 옮겨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운송됐다. '춘양목'(春陽木)이라는 이름이 붙은 배경이다. '강송'(鋼松)은 금강송을 줄인 말이기도 하고, 재질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껍질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적송'(赤松)이라고도 부른다.

금강소나무 최대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북면과 금강송면의 '금강소나무숲길'은 산림청이 만든 1호 숲길이자,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걷기 여행길이다. 첩첩산중의 두메에서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화마를 피하며 수백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경이로운 모습으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이곳은 조선 숙종 6년(1680년) 황장목 생산을 위해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한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국가가 보호·관리하고 있다. 금강소나무숲길 역시 예약을 통해 구간당 하루 80명만이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탐방할 수 있고, 탐방객에게 지역 주민이 제공하는 민박과 도시락을 권장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책임여행, 생태관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비 오는 날의 숲으로

600년 된 대왕소나무를 볼 수 있다는 4구간을 골랐다. 처음 만들어졌을 땐 난도 최상의 전문 산악인 코스였다가 나중에 중상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구간 길이는 10km가 넘고 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산행 초보에게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길이다. 오랜만에 샘솟은 도전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예약을 마쳤다.

애써 다진 굳은 결의는 사실 무색해졌다. 먼 길을 달려 탐방 전날 울진에 도착하니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가늘어졌다가 굵어졌다 하며 마음도 같이 줄어들었다 풀어졌다 했다. 오전 8시 40분 집합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맞춰놓은 새벽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거센 빗소리에 놀라 저절로 눈이 떠졌다. 걱정이 한가득 몰려들었지만 어제저녁 집합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 이후 우천으로 인한 취소를

알리는 새로운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구불구불 시골길과 물이 차오른 계곡 길을 달려 4구간 탐방 집합소인 소광리 노인회관에 도착했다. 그제야 '이쯤이야' 할 정도로 조금 안심이 될 만큼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사실 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예보된 터라 정원보다는 훨씬 적은 13명이 이날 탐방 신청을 했고, 신청자 중 절반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민정 해설사는 "늦장마와 폭우로 계곡물이 넘쳐 징검다리를 몇 개 건너야 하는 4구간 탐방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곧 "이런 곳은 날에 말리까지 왔으니 아무나 볼 수 없는 멋진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다소 침울하게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날 구 해설사가 탐방객을 이끈 곳은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족탐방로였다. 정규 코스인 1~5구간은 10~17km에 달해 노인이나 어린이가 함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가족탐방로는 5km 남짓으로, 오르막길은 대부분 널찍한 임도에, 내려오는 산길도 험하지 않다. 대왕소나무 대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오백년송부터 뫇난이송과 미인송, 소나무 숲을 내려다보는 관망대를 거쳐 군락지를 관통해 내려온다. 이날은 비 때문에 가능한 곳까지 차로 이동했고, 징검다리가 잠긴 곳은 파했기 때문에 평소 운영되는 가족탐방로와 일부 구간이 달랐다.

'소나무의 나라'

무려 16.7km를 걸어야 하는 최장 코스인 3구간이 거의 끝나는 곳에서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됐다.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란 금강소나무가 파노라마로 펼쳐진 주변을 둘러보며 벌써 감탄이 나오는데, 감동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단 소나무에서 편백보다 훨씬 더 많은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말에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다.

시작은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이다. 40년 이상 된 나무들만 자라고 있는 현 상태를 방치하면 큰 나무들이 죽었을 때 금강소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금강소나무가 너무 밀집한 곳에서는 솎아내고, 소나무와 경쟁하는 활엽수는 제거해 우량 금강소나무 숲으로 가꾸고 있다. 후계림에서는 어미나무를 남겨두고 잡목들을 정리한 뒤 어미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종자가 자연 발아하도록 하거나, 우량 종자로 양묘장에서 옮겨 심은 어린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생태경영림 입구를 지나





면 안도현 시인의 '울진금강송을 노래함'이 새겨진 비석이 눈에 들어온다. '소나무의 정부' '소나무의 궁궐' '금강송의 나라'로 성큼 발을 내디딘다.

"소나무의 정부가 어디 있을까?

소나무의 궁궐이 어디 있을까?

묻지 말고,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로 가자

아침에 한 나무가 일어서서 하늘을 떠받치면

또 한 나무가 일어서고 그러면

또 한 나무가 따라 일어서서

하늘지붕의 기둥이 되는

금강송의 나라...(후략)"

금강소나무전시실에 들어가 돌처럼 차갑고 단단한 황장목 통나무 의자에 앉았다. 숲에서는 볼 수 없는 금강소나무의 속을 볼 수 있다. 판재와 단면목으로 나란히 전시해 놓은 일반 소나무와 금강소나무는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일반 소나무는 옹이가 많고 심재가 50% 정도라면, 금강소나무는 옹이 하나 없이 매끈하고, 심재가 80% 이상이다. 척박한 땅에 자기 키만큼 뿌리를 내리는 금강소나무는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 소나무보다 나이테가 세 배나 촘촘하다. 그만큼 단단하고 뒤틀림이 적다. 또 항균 성분이 있는 송진의 함량이 높아 쉽게 썩지 않는다. 한쪽에는 수령 230년, 키 23m의 고사한 금강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 껍질을 벗기고 아홉 토막으로 잘라 쌓아 놓았다. 구 해설사는 "금강소나무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옹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런 금강소나무 한 그루면 집 한 칸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실 옆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오백년송이 서 있다. 지름이 96cm, 키가 25m에 달하는 이 소나무는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의 터줏대감이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견딘 가지들은 제각기 용틀임을 하고 있고, 허리춤에는 이름 모를 활엽수의 씨앗이 내려앉아 터를 잡았다. 금강소나무는 수령이 더해갈수록 껍질이 육각형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거북이 등처럼 그 모양이 선명하다. 바로 옆에 흐르는 계곡을 향해 몸을 굽혀 그 기

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달렸다. 이곳이 금강소나무숲길 3구간의 끝이다.

비가 선물해 준 소나무숲 비경

숲으로 더 들어가면서 노란색 페인트로 띠가 둘러진 소나무들이 보였다. 문화재 복원용으로 선별해 놓은 나무들이다. 현재 총 4천137그루가 문화재용으로 자라고 있다. 2005년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금강소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타임캡슐도 보인다. 소나무 종자와 키우는 방법 등 관련 자료를 담아 150년 뒤에 개봉하도록 했다.

보라색 꽃잎이 고운 개미취를 구경하며 조금 더 오르면 첫 번째 포토존인 뭇난이 소나무가 나온다. 산을 오레 지킨다는 그 뭇생긴 나무다. 밑동에서 줄기가 갈라져 자라 목재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보기에는 더 좋다. 뭇난이 소나무 주변 잡목은 제거하고, 소나무가 올라다보이는 곳에는 앓기 좋은 돌을 두어 잠시 쉬며 온전한 모습을 감상하기 좋게 해놓았다. 조금 더 올라가면 미인송을 만난다. 말쑥이 떨어진 곳에 마련된 발판에 올라서야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키가 크다. 이름대로 흠잡을 데 없이 곧다. 줄기가 아무리 곧아도 가지는 대칭을 이루지 않는 나무가 훨씬 많은데, 해와 물을 향해 가지를 뻗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락지 관망대에 도착했을 즈음엔 어느샌가 우산을 접어도 될 만큼 비가 잦아들었다. 비에 젖은 금강송은 제 줄기의 붉은빛을 더 선명히 드러냈다. 소나무의 푸른 잎 사이로 흐르는 산안개는 당장 산신령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굵직한 탄성을 내뿜었고, 누군가는 잠시 말을 잃었다. ❶





❶ 가족탐방로는 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300m 떨어진 산림수련관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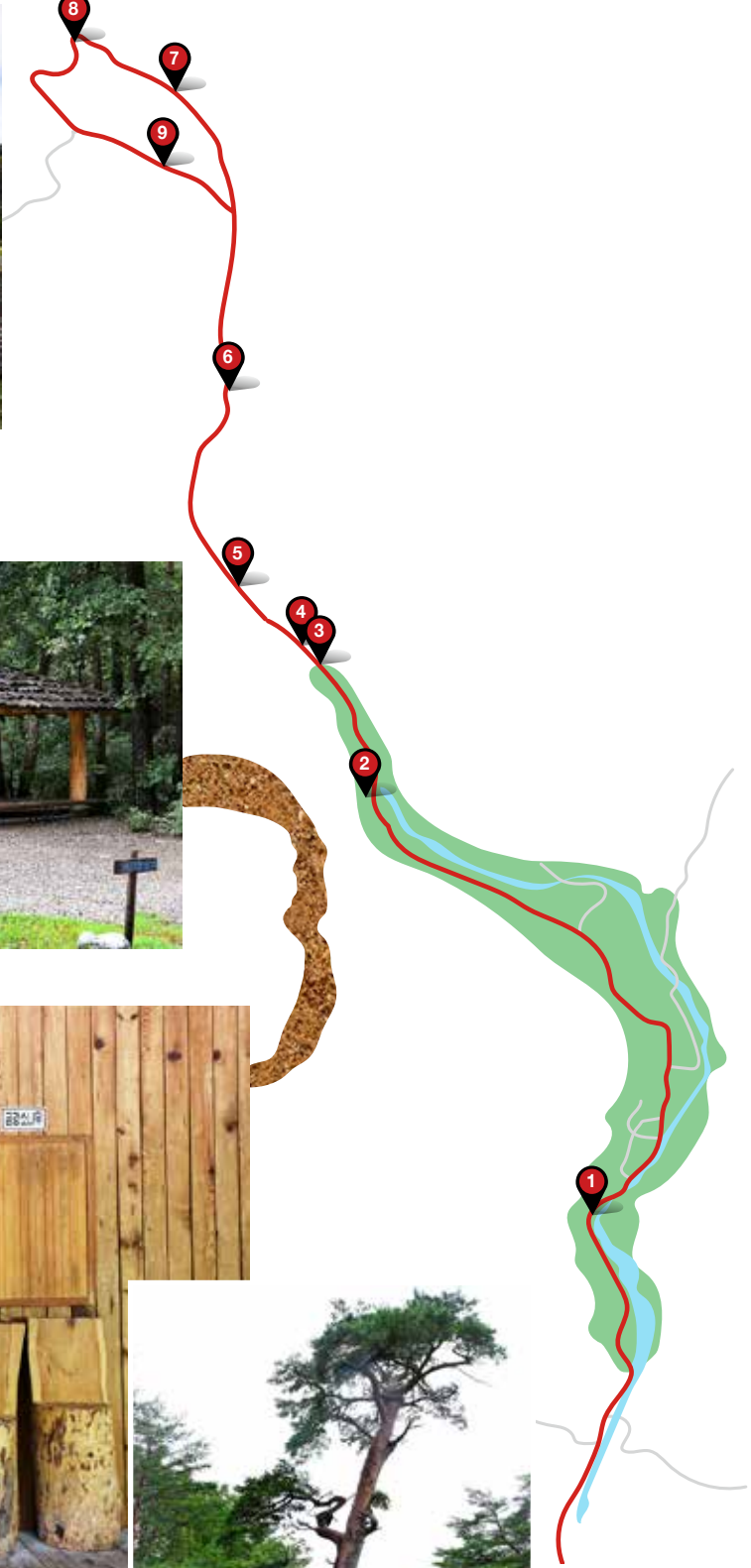
❷ 금강소나무숲길 3구간의 중점이자 가족탐방로 시작점으로, 이곳에서 주민이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먹는다.



❸ 금강소나무전시실, 금강소나무와 일반 소나무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❹ 오백년송



❺ 금강소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며 만든 타임캡슐. 소나무의 종자와 관련 자료를 넣어두었다.



❷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공생목



❸ 미인송



❹ 못난이 소나무



❹ 산불에 타버린 나무

울진 구수곡자연휴양림 솔 향기, 물소리 가득한 숲속의 집

북으로 강원도 삼척과 경계를 맞댄 경북 울진은 여전히 발길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두메다. 그래서 이곳에서 최대 군락지를 이룬 금강소나무가 화마와 수탈을 피하고, 천혜의 자연이 사람 손을 덜 탄 채 귀하게 남아 있다. 시원하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속에서 아홉 계곡물이 합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수곡자연휴양림은 어느 계절에 찾아도 좋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Tip

[이용 방법 & 요금]

구수곡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www.uljin.go.kr/gusugok>)를 통해 사용 예정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성수기(7월 1일~8월 31일)에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다. 규정 인원내 맞게 침구와 요리기구, 식기가 갖춰져 있으며 타월을 포함해 개인 세면도구는 준비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동반할 수 없다.

▲ 숲속의 집

2인실(3실) 비수기 5만원/ 성수기 6만원
4인실(3실) 비수기·성수기 8만원
6인실(11실) 비수기·성수기 10만원(황토집)/ 비수기 11만원·성수기 13만원(통나무집)
8인실(2실) 비수기 13만원·성수기 15만원
12인실(4실) 비수기 10만원·성수기 11만원(원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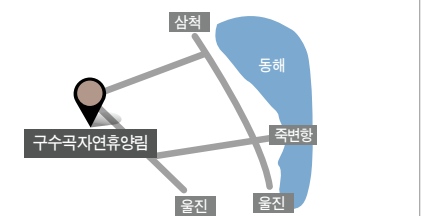
▲ 야영 데크

40호/2만원

[문의]

구수곡자연휴양림 ☎ 054-789-5470 ~ 2)

[가는 길]



일대에 펼쳐진 금강소나무숲길과 군락지 탐방도 훌륭한 선택이다. 하지만 굳이 차를 타고 휴양림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울진군은 전체 면적의 86%가 임야이고, 그 대부분이 소나무다. 휴양림에서 응봉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6개 코스의 등산로와 숲속의 집 주변으로 조성된 4개 코스의 생태숲길에서도 소나무 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금강송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금강송문화관도 있다. 1층에서는 사진과 영상, 조형물로 금강송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고, 2층에서는 금강송으로 만든 가구와 목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차로 5분 거리에는 자연 용출 온천인 덕구보양온천과 온천 원탕까지 덕구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왕복 8km 둘레길이 있고, 20분이면 동해 해변과 항구에 닿는다. 죽변항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의 이국적인 정취와 하트 모양 해변으로 유명하다.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가는 길에 있는 불영사와 불영사계곡, 천연기념물인 석회암 동굴 성류굴,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생태 마을과 탐방길, 숙종이 '관동제일루'라 칭송한 망양정 등 하루 이틀로는 모자랄 보배들이 주변에 천지다. ❶

응봉산(998.5m) 자락 아래, 10km에 달하는 구수 계곡이 흐르는 구수곡자연휴양림은 즐길 거리가 많다. 늦여름엔 붉은 꽃이 핀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이어지는 십이령길이 그 첫 번째다. 울진의 보물인 금강소나무숲에 자리한 통나무집과 황토집은 아늑하고, 물놀이장 옆에 만들어진 야영장은 그 운치가 그만이다. 구

름다리과 징검다리가 나란히 가로지르는 물놀이장은 수량이 풍부하고 널찍해 아이들이 놀기 좋다. 2층 건물에 4실이 들어선 펜션형 숙소도 쾌적하다. 족구나 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운동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피크닉장과 봄에 만발할 야생화단지도 매력적이다. 휴양림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북면 두천리~금강송면 소광리